

예수의 담화를 통해서 본 계명 교육의 중요성과 과제

양동일(하브루타문화협회 상임이사)

1. 서론

기독교 역사에서 이제까지 구약성서(Tanach)의 율법¹⁾은 일종의 ‘몽학 선생’으로 기독교 신학자와 신앙인의 관심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기독교 신앙에서 율법이나 계명을 진정으로 폐기해야 하는가? 아니면 그것을 연구하고 신앙인의 삶에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하는가? 믿음이란 형이상학적 관조처럼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기독교의 신앙은 추상성의 인질이 되었다.

유대교는 ‘도덕적 유일신 사상’에 기반을 두고 있다. 아브라함을 ‘최초의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가 본질을 왜곡하는 우상이 아니라 현상 너머의 보이지 않는 신의 존재를 파악한 최초의 인간이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의 우상 너머에 있는 참된 신을 발견한 것은 그의 높은 도덕성에 기인한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역사적으로 그들의 첫 번째 혁명을 ‘도덕 혁명(Ethic Revolution)²⁾’이라고 일컫는다. 이것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시내 산(Mt. Sinai)에서 토라(모세오경)를 받은 모세에 의해 완성된다.

종교 교육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으로 귀결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와 관련된 삶의 실천 규범들을 등한시하거나 무시하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성 어거스틴(St. Augustine)을 비롯한 중세 교부철학 이후 수많은 신학자들이 ‘믿음’과 ‘실천’의 통합을 성취하지 못하고 이분법적 접근방식을 채택한 이유도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신성시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담화는 율법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나타내고 있을까?

예수의 담화와 계명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선행 연구는 이제까지 크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신의 은총’이나 복음주의를 강조하는 기독교 교육에서 율법이나 계명은 언급조차 금기시 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예수의 담화와 계명 교육의

1) 여기서 ‘율법’은 특별히 토라(모세오경)에 제시된 613계명을 가리킨다. 613계명은 모세오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을 모두 합한 것으로 각각 창세기에 3개, 출애굽기에 110개, 레위기에 246개, 민수기에 51개, 신명기에 199개가 등장한다.

2) 이스라엘 에프라타, 마하나임 수장 랍비(Rosh HaYeshiva) 빌크 솔로모(Vilk Shlomo)의 수업. 유대인의 3대 혁명은 첫째 ‘토라 혁명(또는 도덕혁명)’, 둘째 ‘탈무드 혁명(또는 교육 혁명)’, 셋째 ‘카발라 혁명(또는 영성 혁명)’이다. 첫째 토라 혁명은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모세까지 완성된다. 둘째 탈무드 혁명은 토라(모세오경) 또는 미쉬나(구전토라)에 대한 토론교육으로써 일종의 랍비문학이다. 셋째 카발라 혁명은 현대 유대 신비주의인 하시디즘에 의해 본격화된 영성 혁명을 말한다.

중요성을 재조명하는 것 자체에 크나큰 의의가 있다.

복음주의 관점에서 보면 ‘구원’이란 신이 주신 은총으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율법이나 계명은 쓸모없거나 폐기되어야 한다. 만일 예수의 담화가 율법에 대해 상반된 관점을 제시했다고 할지라도 그 중 한 가지 관점만을 채택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합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이 논문에서 주로 밝히고자 하는 것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에 대해 어떤 입장을 견지하는지를 알아보고 기독교 교육에서 계명 교육의 중요성을 찾아보고자 한다. 더 나아가 예수의 담화에 나타난 쉼마 교육의 중요성, 쉼마와 십계명의 상관관계, 그리고 십계명과 613계명을 연관 지어 볼 것이다.

2. 예수의 담화를 통해서 본 율법의 중요성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도덕적 규범들, 즉 율법에 대해 어떤 입장을 견지했을까? 첫 번째로 율법에 관한 예수의 담화 중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³⁾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담화는 첫 구절부터 율법 폐기주의자들의 주장을 무색하게 한다. 다음에서 인용하는 복음서의 구절을 참고해 보자.

*17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18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일획도 결코 없어
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19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
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
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20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낮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여기서 예수는 율법을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이라고 한다. 그는 또한 율법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일점일획도 없어지지 않으며 율법의 지극히 작은 것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도 작다고 일컬음을 받는다고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율법에 관한 말을 맺으며 한 때 그가 ‘독사의 자식’이라고 일컬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의(Righteousness)’가 더 나아가 한다고 말한다. 이 같은 사실은 예수의 담화가 율법 폐기주의자들과 완전히 상반된 견해를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로 예수의 담화 중 율법에 대해 중요성을 강조한 사건은 어떤 부자 청년의

3)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p 5, 마태 5장 17절~20절. 예수 그리스도의 담화 중 율법의 중요성에 대해 가장 대표적으로 언급된 표현

영생에 관한 질문이었다. 부자 청년은 기본적으로 영생이 어떤 ‘선한 행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다음에서 인용하는 예수의 담화를 살펴보자.

16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17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을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18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 하지 말라,

19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20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대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21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22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⁴⁾

위에서 제시한 예수의 담화는 부자 청년의 영생에 대한 질문이 율법 또는 계명의 실천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부자 청년의 계명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에 예수의 대답은 ‘십계명’ 후반부의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을 강조한다. 부자 청년은 십계명의 본질에 대해 깊은 통찰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부자 청년의 십계명에 대한 이해가 계명 실천의 소극적 측면이었다면 예수의 담화는 계명 실천의 적극적 측면을 암시한다.

비록 부자 청년이 모세오경의 십계명이 613계명이 열 가지 범주라는 사실의 통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예수의 마지막 제안은 파격적인 것이었다. 하나님의 본질은 결국 ‘주는 자(The One who gives)’이며 인간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 것이라고 했을 때 모든 계명을 지킨 자가 완전해지려면 ‘주는 행위’ 즉 켄다카(Tzedaka)⁵⁾를 실천해야 할 것이다.

율법에 대한 예수의 담화 중 가장 흥미로운 사건은 바로 어떤 서기관이 예수에게 한 질문이었다. 이 서기관은 토라(모세오경)를 필사하는 일을 맡은 자로서 613개의 계명 중 어떤 계명이 가장 큰 지에 대한 질문이었다. 놀랍게도 예수는 유대인들이 그토록

4)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p 31, 마태 19장 16절~22절, 예수 그리스도의 담화 중 영생이 곧 십계명과 율법의 실천에 있다는 것을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한 말

5) 물질적 희사, 마이모니데스(Maimonides 또는 ‘Rambam’이라고 부르는 유대의 현자)의 자선의 여덟 단계 참조. 마이모니데스는 자신의 순서를 첫째 받는 사람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둘째 쌍방이 서로 모르면서 주고받는 것, 셋째 주는 자는 받는 자가 누구인지 알지만 받는 자는 모르게 주는 것, 넷째 받는 자는 주는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주는 것, 다섯째 달라고 하기 전에 주는 것, 여섯째 달라고 해서 주는 것, 일곱째 줄 수 있는 것보다 덜 주지만 즐겁게 주는 것, 여덟째 아까워하면서 주는 것으로 나누었다.

강조하는 ‘쉐마’를 언급하고 있다. 다음에서 인용하는 예수의 담화를 살펴보자.

28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아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29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⁶⁾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30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31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32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33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34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⁷⁾

구원자 예수는 유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쉐마’를 가장 첫째로 지켜야 할 중요한 계명이라고 대답한다. 유대인들이 태어나 말문을 틀 때부터 외치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는 죽을 때까지 입에 붙어있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다. 이것을 하나님의 본체요, 생명의 본질인 구원자 예수가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

유대 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과의 연합(Unity)’이다. 이것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는 것(Emulation)’이다. ‘믿음(Faith)’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에무나(Emunah)’인데 이 낱말의 어원은 ‘우만(Uman; Craftsman, 장인)’이라고 한다. 말하자면 믿음이란 반드시 어떤 행위를 수반하는 것이다. 예컨대 ‘믿음’을 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창조주가 6일간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 쯤 안식했던 것처럼 인간도 6일간 세상에서 창조적인 활동을 하고 7일 쯤 안식을 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다. 그렇게 했을 때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과 인간이 명확하게 하나가 되고 연합하게 된다.

3. ‘쉐마(Shema)⁸⁾’로 특징짓는 유대 교육

유대 교육은 한 마디로 ‘쉐마(Shema, 들으라)’ 교육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쉘마 암

6) 신명기 6장 4절 이하

7)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p76, 마가 12장 28절~34절

8) 신명기 6장 4절~9절이 대표적이다.

송은 유대인들이 태어나서 말문을 트기 시작한 때부터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수행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쉼마 교육은 다음에 인용하는 세 가지 구절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 쉼마 구절이 그들의 대표적인 율법인 십계명을 암시하고 있다면 세 번째 쉼마 구절은 십계명이 열 개의 범주로 확대된다. 결국 613계명 모두를 암시하며 쯔쯔트(Tsitsit)를 착용하여 그것을 기억하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이와 같은 순서를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자. 첫 번째 구절은 쉼마의 대표적인 구절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이다.

- 4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5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6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8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9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위에서 제시하는 쉼마 구절은 ‘하나님이 오직 유일한 여호와’라는 고백과 함께 인간의 감성과 지성과 모든 힘을 쏟아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명령한다. 그것은 집에서부터 시작하여 바깥출입과 잠에 들고 잠을 깨는 행위까지 확대된다. 손과 이마에 붙이는 테필린(Tefillin)⁹⁾의 의미는 가슴¹⁰⁾과 머리, 즉 ‘감성과 지성을 다해 기억하고 사랑한다’는 뜻을 내포한다. 또한 바깥출입을 할 때 나가고 들어올 때 문설주의 메주자(Mezuzah)¹¹⁾를 접촉하여 악한 성향(Evil Inclination)을 제어한다.

두 번째 구절은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까지로 다음과 같이 확대된다.

- 13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9) 테필린(Tefillin)은 쉼마 말씀을 집어넣은 까맣고 네모난 껍 또는 작은 상자로 팔과 이마에 맨다. 팔 쪽에 부착하는 테필린은 쉼마 말씀을 한 껍 안에 모두 집어넣고, 이마에 부착하는 테필린은 쉼마 말씀을 네 개의 칸으로 나누어 집어넣는다. 이것은 생각할 때 다양하게 생각하고, 행할 때는 한 가지로 행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10) 어깨 바로 아래쪽 팔에 매다는 테필린은 가슴을 향하도록 하여 가슴을 문지르게 한다. 또한 이마쪽에 매다는 테필린은 눈썹과 정수리의 가운데에 부착한다. 이것은 마음과 뜻과 힘, 즉 감성과 지성과 의지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이다.

11) 메주자(Mezuzah)는 쉼마 말씀을 집어넣은 기다란 통으로 주로 화장실 문을 제외한 집안의 모든 문과 현관문의 문설주에 비스듬히 매단다. 집안에서 이동할 때나 집안에서 밖으로 나갈 때 항상 접촉하여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한다.

14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15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16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하므로

17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시므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18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19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20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21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여기에서는 다시 첫 번째 쉼마 구절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사실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것과 하나님의 명령과 상응하는 보상과 처벌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쉼마를 기억하는 사람은 이제 삶 속에서 그의 악한 성향(Evil Inclination)을 극복하고 선한 성향(Good Inclination)으로 세상을 바로 잡는 티쿰올람(Tikkun Olam)¹²⁾의 삶을 살아야 한다.

세 번째 구절(민수기 15:37-41)은 다음과 같다.

37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38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39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40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12) 티쿰올람(Tikkun Olam)은 유대인의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로 잡고 세상을 개선한다'것을 뜻한다. 유대인은 사후에 천상에 가서 하나님 앞에 받는 질문이 있다. 첫째 정직하게 장사를 했는가? 둘째 아이를 많이 낳으려고 했는가? 셋째 토라 공부를 열심히 했는가? 넷째 세상을 개선하려고 노력했는가? 첫 번째 질문은 신앙을 지키기 가장 어려운 '시장'에서 신앙을 입증했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자녀를 많이 낳아서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했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세 번째 질문은 하나님이 말씀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고 열심히 했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네 번째 질문은 불완전한 세상을 완전한 세상으로 바로잡으려고 노력했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41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마지막 쉼마 구절은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서 해야 할 임무를 기억하게 한다. 이를 위해 옷단 깃에 술을 단 짜찌트(Tsitsit)¹³를 입어야 한다는 규정, 그리고 마음과 눈을 좇아 행하는 것을 금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한다.

4. ‘쉐마’는 십계명의 다른 이름

유대인들이 쉼마를 암송할 때 십계명, 더 나아가 토라(모세오경)에 나타난 613계명 전체를 상상한다. 이것은 모세가 시내 산(Mt. Sinai)에 올라 하나님께 받은 역사상 가장 오래 되고 가장 높은 도덕법을 의미한다. 아래에서 쉼마 구절이 어떻게 십계명과 병치¹⁴를 이루는 지 살펴보도록 하자.

1.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 - 1계명(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신명기 6장 4절)*
2.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 2계명(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신명기 6장 4절)*
3.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 3계명(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다, 신명기 6장 5절)*
4.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 4 계명(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민수기 15장 40절; 안식일 계명은 토라의 모든 계명을 합친 것과 같다)*
5.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 5계명(네 부모를 공경하라; 나와 네 자식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신명기 11장 21절)*
6.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 6계명(살인하*

13) 짜찌트(tsitsit)는 율법의 613계명 모두를 상징한다. 짜찌트는 유대인들이 착용하는 속옷의 일종으로 옷 아래 끝머리 네 곳에 매듭으로 만든 술을 말한다. 술의 제작 방법은 실로 겹매듭을 만든 후 7번 감고, 겹매듭을 만든 다음 다시 8번 감고, 다시 겹매듭을 만든 다음 11번 을 감는다. 마지막 겹매듭 다음에 13번을 감은 다음 겹매듭으로 다시 묶어 길게 늘어뜨린다. 짜찌트(tsitsit)란 히브리어 낱말의 숫자값(Gematria)이 ‘600’을 뜻하고 여덟 개의 줄과 다섯 개의 매듭이 13을 뜻하므로 613개의 계명을 상징한다는 뜻이다.

14) 예루살렘 탈무드, 베라콧(Berachot, 축복) 9a~9b. 탈무드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바빌론 유수 때 바빌론에게 기록한 ‘바빌론 탈무드’가 있고 로마의 압제 때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서 기록된 예루살렘 탈무드가 있다. 바빌론 탈무드가 포로생활을 했던 유대인들에게는 비교적 용이하고 구체적으로 기록된 반면, 예루살렘 탈무드는 로마의 압제를 피하기 위해 난해하고 함축적으로 기록되었다. 탈무드의 가장 첫 번째 주제는 ‘씨앗(제라임, Zeraim)’인데 그 중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베라콧(Berachot, 축복)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지 말라; 멸망할까 하노라, 신명기 11장 17절)

7.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 7계명(간음하지 말라; 삼가고 마음의 미혹을 물리쳐라, 신명기 11장 16절)

8.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 8계명(도둑질하지 말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신명기 11장 14절)

9.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 9계명(거짓증거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라, 신명기 11장 21절)

10.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 10계명(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신명기 11장 20절)

5. 십계명은 613계명의 10범주(Categories)¹⁵⁾

이제 우리는 십계명이 613계명으로 확대되고 이것이 열 개의 범주로 다시 나뉘는지 알아볼 차례다. 모든 절기에 대한 계명은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으로 범주화되며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 대속죄일 등이 그 예이다.

모든 음란한 행위에 관한 계명은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의 계명으로 범주화된다. 예컨대, 아버지, 어머니, 누이, 딸, 고모, 숙모, 이모, 며느리, 손자, 손녀, 동성 또는 짐승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는 계명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어떤 경우 깊게 생각해야만 열 개의 범주와 연관 지을 수 있는 계명들이 존재한다. 예컨대 다음과 같이 계명들은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의 범주에 해당한다.

‘남을 헐뜯는 말을 하고 다녀서는 안 된다(레위기 19장 16절a)’

‘이웃을 타이르는 과정에서 그를 부끄럽게 해서는 안 된다(레위기 19장 17절a)’

(여기에 더하여 ‘여러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한 사람을 모욕하면 안 된다’)

‘너희는 새끼 염소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아서는 안 된다(출 23:19b; 34:26b)’

‘새끼를 품고 있는 어미 새를 잡아서는 안 된다(신 22:6)’

‘새끼를 잡기 전에 먼저 어미 새를 날려 보내야 한다(신 22:7)’

‘제물로 짐승을 바칠 때,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 잡아서는 안 된다(레 22:28)’

왜 남을 헐뜯는 말을 하고 다니면 안 되는가? 그리고 왜 이웃을 타이르는 과정에서 그를 부끄럽게 하면 안 되는가? 또한 그런 계명들이 어떻게 ‘살인하지 말라’의 범주에 들어가는가?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 소위 ‘인격 살인’을 저지르기 때문이다. 왜 새끼 염소를 어미의 젖으로 삶아서는 안 되는가? 어떻게 이 작은 계명의 제6계명의 범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데 쓰일 어미의 젖으로 새끼를 죽이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15) 유대주의 이해(Understanding Judaism, pg 29, Ten Categories or Ten Principles) 십계명은 유대인에게 ‘범주’ 또는 ‘원리’를 뜻한다. 따라서 십계명은 613계명을 열 개로 범주화한 유대인의 삶의 원리라고 볼 수 있다.

유대인들이 코셔(Kosher)¹⁶규정을 준수할 때는 이와 같이 유제품(우유를 포함한 모든 우유 성분을 함유한 제품)과 고기를 분류하며 코셔 주방(Kosher Kitchen)의 개념도 개수대를 두 개로 분류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어떤 메커니즘이 이러한 도덕규범들 안에서 작용하고 있을까? 만약에 어미 새와 새끼 새의 모정을 깊게 생각하고 유제품과 고기류를 분류할 만큼 생활 가운데 발생할 수 있는 섬세한 도덕적 행위들을 고려한다면 실제로 인명을 살상하는 일은 엄두도 못 낼 것이다. 이와 같은 사례에서 살펴본 것 같이 613계명은 십계명, 즉 열 개의 범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6. 결론

구원자 예수가 소위 율법의 전문가들이라고 일컫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비난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선한 율법의 본질, 즉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을 통찰하지 못하고 다만 형식과 절차의 문제로 전락시켜 인간을 괴롭히는 데에 악용했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 구원자 예수의 담화를 통해 율법의 중요성, 영생과 율법의 관계, 마지막으로 쉘마의 중요성까지 언급한 사실을 살펴보았다. 더 나아가 유대 교육의 본질이 쉘마 교육이라는 점과 그것이 다름 아닌 십계명 교육이며 열 개의 범주(Categories)로서 613계명을 총망라하고 있다는 점을 고찰해보았다.

결국 구원자 예수는 선한 율법을 통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그 의(Righteousness)가 더 나아가 한다고 말한다. 이것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도덕적 유일신 사상이 모세에 이르러 완성되었으며 구원자 예수에 의해 재해석된 것이다. 유대 교육에서 도덕적 계명 교육을 중요시 여기는 것과 같이 구원자 예수에 의해 재해석된 쉘마와 계명 교육이 현대의 기독교 교육에 절실히 요구된다.

16) 코셔(Cosher)는 유대인의 정결음식을 뜻한다. 코셔에 따르면 먹을 수 있는 음식과 금지된 음식으로 나뉜다. 육류의 경우 되새김질과 발굽이 갈라진 가축에 해당한다. 되새김질과 발굽이 갈라진 가축으로 소나 염소의 경우 코셔에 해당하고 돼지의 경우 발굽이 갈라졌으나 되새김질을 하지 않으므로 코셔가 아니다. 생선류의 경우 등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생선이 코셔에 해당한다. 또한 유제품과 고기류를 철저히 분류하는 것이 대표적인 코셔 음식의 원칙이다.

<참고문헌>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2012, 대한성서공회

Talmud Yerushalmi, Seferia Version, Barakhot 9a-9b

Talmud Bavli, Schottenstein Daf Yomi Edition, 2013, The ArtScroll Series.

Understanding Judaism, Rabbi Benjamin Blech, 1992, JASON ARONSON INC.

BEYOND ROUTINE, Rabbi Yehoshua C. Grunstein, 2018, Urim Publications.

TZEDAKAH, Rabbi Avrohom Chaim Feuer, 2011, Vivian and Stanley Bernstein.

Shabbat I, Plugging into the Goals of Life, OLAMI Resources

Shabbat II, The Shabbat Experience, OLAMI Resources

The Shema Part I, The Jewish National Anthem, OLAMI Resources

The Shema Part II, Say It Like You Really Mean It, OLAMI Resources

Breaking the Jewish Code, Perry Stone, 2009, Charisma House.